

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보도자료



배 포 일	2025. 5. 29.(목)	사 진 · 영 상 유 무	사 진(○), ENG(×)
보 도 일 시	배포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		
담당부서	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	담당자	강진희 사무관 (044-300-4821)
			장혜미 주무관 (044-300-4823)

베트남 현지서 79억 원 규모 수출협약 성과

- 대전·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...4개사 약 79억 원 규모 MOU 체결 -

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가 베트남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관내 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약 79억 원(5,630천 달러)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베트남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.

시는 지난 26~2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‘2025 대전·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’를 진행했다.

이번 행사에는 세종시를 대표해 ▲도아협동조합(비누·핸드워시) ▲스위트바이오(그릭요거트) ▲에스와이코리아(세차용 전동분무기) ▲대명연마(연마지) 등 4개사가 참여했다.

이들 기업은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과 총 34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, 약 79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.

먼저 도아협동조합은 전의초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‘도아쑈(DOASUP)’으로 약 39억 원(2,800천 달러)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참가기업 중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.

스위트바이오는 대표 제품인 그릭요거트를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약 18억 원(1,300천 달러)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, 베트남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.

에스와이코리아는 강력한 분사력과 배터리 분리형 방식이 특징인 세차용 전동 분무기 제품을 현지 자동차 유통사에 적극 홍보해 약 14억 원(1,000천 달러)의 수출협약 성과를 올렸다.

(주)대명연마는 하노이에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약 7억 원(530천 달러) 규모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이승원 경제부시장은 “앞으로도 우리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